

## 어린이 보행환경안전 위한 시책 점검

부산광역시 보행도시정책과 보행권익증진팀  
2023.10.19.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2023.12.1.



무인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출처: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71% | ...전국최초 무인단속카메라  
효과분석. 12월 1일 보도자료.

### 부산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추진

부산시는 10월 19일,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후속 추진사항 점검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5월 22일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기준 마련,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재정 확보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으로 4년간 총 6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850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CCTV, 시인성 강화, 보호 및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보도 설치 사업의 경우 고지대·구시가지로 좁은 도로가 많은 부산의 지형 특성상 실제 사업 가능지는 전체 수요의 10%로 파악되는데, 보도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일방통행 지정 및 학교 담당 허물기 등 경찰청, 교육청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자체기준을 통해 도로 경사도, 속도, 차로 수, 도로형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점수화하였으며, 이를 16개 구·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효과 분석

서울시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107대 설치 대상지의 교통사고에 대해 설치 전·후 2년씩, 총 4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설치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2020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26.7%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71%(31건 → 9건)로 크게 줄었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도 50.4% 감소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200개소, 방호울타리 37km, 신호기 신설·교체 140개소 등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기·종점 노면표시 신규 설치와 기존 흰색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개선할 예정이다.